기업·경제계 '이태원 참사' 추모…행사 취소·축소

삼성전자 창립기념일·한전 '빅스포' 체험 행사·공연 프로그램 등 취소
신세계 '쓱데이'·롯데 '롯키데이' 축소…중기중앙회·상의 등 애도 전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창립기념일을 앞둔 삼성전자와 효성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차분하게 행사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고, 주요 유통업계는 대규모 할인 및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마케팅을 축소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은 오는 2일 개막하는 '제8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2022)를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광주·전남 중소기업계와 경영계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경제계에 따르면 11월1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는 삼성전자는 관련 행사를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용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이번 창립기념일에서는 '뉴삼성'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 애도 기간을 고려해 삼성전자는 행사를 축소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창립기념일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전날인 지난 30일 핼러윈 관련 제품 체험 행사를 곧장 중단했고, 상품 프로모션 이벤트 등 마케팅 행사도 대부분 취소한 상태다.

또 오는 3일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효성그룹도 애도 기간인 것을 고려해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회식도 자제하기로 했다.

오는 2일 개막해 4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 2022를 개최하는 한전도 행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행사 기간 예정됐던 연회를 비롯해 희망·사랑·나눔 콘서트, 지역 특산물 장터, 거리 공연 등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했다.

개막식은 식전에 추모 영상을 송출하며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하고, 폐막식과 전시장의 경품 행사도 폐지한다. 신기술전시회 개관식의 경우 테이프 커팅식을 취소하고 주요 방문객(VIP) 답사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핼로윈 관련 조형물과 포스터 등 제거에 나섰던 유통업계도 애도 차원에서 대규모 할인이나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마케팅을 축소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대한민국 쓱데이' 등 대형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고, 롯데쇼핑도 내달 9일까지 진행하는 '롯키데이' 행사에 관한 마케팅이나 홍보를 최소화하고 상품 할인만 진행하기로 했다. 백화점업계는 또 크리스마스 단장 행사도 미루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중소기업계와 경영계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춘들의 희생에 안타까움이 너무도 크다"며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계도 적극 나서겠다. 산업현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측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참사를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지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내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31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전남 농·축협 144개 조합 직원 150여 명과 '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관련 지도 회의'를 열었다.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남 142개 농·축협 조합장이 새로 뽑힐 예정이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 3분기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광공업 생산지수 광주 8.3%↑
광주·전남 건설수주 '마이너스'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전남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전남 광공업 생산액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이번 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광공업 생산지수(2015년=100)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광주는 8.3% 증가하고 전남은 2.5% 감소했다. 전국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 증가세는 지난해 4분기(9.3%↑)부터 4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1분기(2.3%)부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멈추고 반락했다. 전남에서는 화학제품(-8.1%)과 고무·플라스틱제품(-11.7%)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3분기 기준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지역은 충남(-4.7%), 서울(-3.6%), 전남(-2.5%), 충북(-1.8%), 제주(-1.3%), 강원(-0.3%) 등 6개 시·도이다.

부산 증가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대구(8.6%), 광주(8.3%), 경기(7.7%), 경남(7.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3분기 지역 소비는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3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015년=100)는 1년 전보다 광주는 2.4% 증가하고 전남은 6.1% 감소했다. 전국 평균 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전남은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소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2분기 감소율 4.0%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3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감소 폭은 대형마트 부진에서 비롯됐다. 3분기 동안 경남(5.7%↑)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전국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평균 감소율은 5.0%로 나타났는데, 광주(8.4%)와 전남(7.1%)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전남 대형마트 판매 감소는 지난 1분기(-5.5%), 2분기(-5.9%), 3분기(-7.1%)에 걸쳐 지속하고 있다.

시설투자 지표로 꼽히는 건설수주액도 광주·전남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건설수주액은 1년 전보다 광주 32.6%·전남 1.2% 감소했다. 광주는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전분기(6.9%↑) 성장을 뒤로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광주지역은 공공부문 발주가 58.9% 감소하며 민간(25.5%)보다 감소 폭이 컸다.

전남 공공건설 발주는 지난해 3분기 2838억원에서 올 3분기 4762억원으로 67.8% 증가했지만, 민간 발주가 2조3614억원에서 2조1376억원으로 9.5%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도영 호남통계청 경제조사과 주무관은 "중국 내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남의 주력 품목인 화학제품 수출이 좋지 않았다"며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업들이 지난해 7월부터 설비를 증설하며 늘어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3.61	(+25.21)
↑ 코스닥	695.33	(+7.70)
↑ 금리 (국고채 3년)	4.185	(+0.073)
↑ 환율 (USD)	1424.30	(+2.80)

광주은행 '부동산 경매 정보 서비스' 제공

12월25일까지 마이데이터 가입 행사

광주은행이 전국의 경매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경매 정보제공 업체 ㈜지지옥션과 업무제휴를 맺고 스마트뱅킹 모바일 앱에서 전국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시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광주은행의 자산 관리 서비스인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경매 정보 서비스에서는 기존 유료 서비스와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종합 검색과 법원·기일별 등 조건별 검색을 할 수 있다. 경매 상세 자료와 공시 자료, 분석 자료, 지도 정보 등도 볼 수 있다.

광주은행 마이데이터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 가격, 실거래가 정보 3종과 최초 구입 가격 대비 상승률 등을 확인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조회'를 제공해왔다.

광주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마이데이터 가입 행사를 오는 12월25일까지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출석체크 이벤트'에서는 고객이 자산을 연결하면 지정계좌로 매일 100원이 입금된다. 마이데이터에 처음 가입했다면 3000원을 추가 입금한다.

김훈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광주은행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경매 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맞춤형 상품과 유용한 금융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켄텍, 캠퍼스 조성 공사 발주

기숙사·식당 등 2071억 규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캠퍼스 조성을 위한 2071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한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이달 말에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토건공사 경쟁입찰 공고를 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에는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만1417.2㎡(6479평) 규모 기숙사와 연구 1~2동,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체육관, 어린이집, 온실, 창고 등이 포함된다.

입찰 참가사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제'가 적용된다.

공사 기간은 1020일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